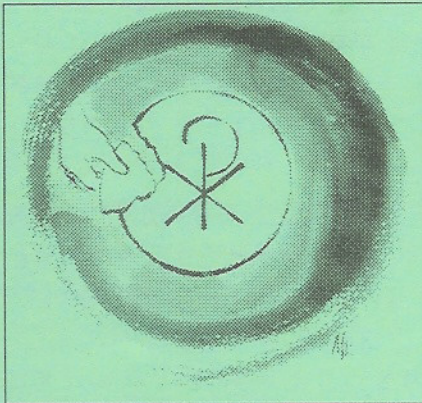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8주일
제29권 36호(나해) 2009 · 8 · 2

[묵상]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요한 6,33)

그날은 갈릴래아 호수를 둘러싸고
숨바꼭질이 벌어졌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군중은 제법 조직적으로 나누어 배를 타고
호수와 그 둘레를 살살이 물색했다.
결국은 카파르나움에서 놀이는 끝났다.
그랬다. 카파르나움이었다.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갈릴래아 지방에는 카파르나움이 있다.
언제고 중요한 가르침은 여기서 내려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어이쿠, 들켰네. 어찌 아셨을까?
하기야 우린 늘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다.
공짜로 먹을 것을 준다면야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 나설 우리들이다.
육신을 배불릴 빵을 좇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30 7:00 8:00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2:30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김철웅 베드로, 한숙이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장현숙 발마라, 엄은섭 도로테아 (생)조지 가보라, 신우용 안토니오, 김민중 안드레아, 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엄제니 클라우디아와 조이 아폴로니아, 박광식 바오로와 정희 마리아 가정, 송주영 크리스티아와 이상용 엘리야
주 일 낮 미사	(연)이병호 토마스, 김중환 야고보, 이현호 요한, 이금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낙태된 영혼들, 윤춘의 스콜라스티카, 감금된 아가다, 강양근, 이상현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생)박희자 마리아, 서병교 라파엘, 백지자 세레나, 임춘희 켈마 가정, 이종민 베드로, 김세민 리디아, 송호장 요셉과 전하연 마리아 가정,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종민 요셉, 유영희 그레고리오와 양정훈 클라라 가정,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와 준석 바오로, 제이슨 강, 이행자 리드비나, 김호순 비비안나, 홍석인 체칠리아, 구 마리아네 수녀, 최성욱 사제,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6,2-4.12-15
화답송	◎주께서 하늘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미 우리 들어서 야는 일들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일들을, 그 자손들에게 숨겨두지 않으리니,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려 하노라. 주님의 영광을, 그의 능하심을 전하려 하노라.◎ ○그래도 당신은 위에서 구름을 호령하여, 하늘의 문들을 열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하늘의 빵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강한 자의 빵으로 인간을 먹이시고, 배부르도록 음식을 내리시니라. 하느님은 그들을 당신 성지로, 오른손이 얻으신 그 산으로 이끄시니라.◎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4,17.20-24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복음	요한(John) 6,24-35
영성체송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41	240
봉헌	270	264,270
성체	374	292,305
파견	I Will Celebrate	181

23) 가톨릭교회는 자연법을 어기는 피임을 반대한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특별법으로 부여하신 생명 전달의 능력을 방해하는 부부 사랑의 행동은 혼인을 제정하신 하느님의 계획에도 위배되고, 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도 위배되는 행동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산아의 법칙을 지키며 부부 사랑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생명의 원천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봉사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간생명 13항>

1960년대 경구피임약의 개발 등 인공피임법이 발달하고 여성해방, 성 개방 등의 풍조가 확산되면서 교회가 피임을 허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님은 회칙 <인간 생명>을 통해 인간의 성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목적, 즉 부부의 일치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분리될 수 없으며, 생명 전달을 방해하는 피임, 단종, 낙태가 자연법에 어긋나므로 단죄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교황님은 또한 인공피임이 가져올 폐해, 즉 부부의 불신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에게 타락의 기회를 주며, 여성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그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24) 피임은 낙태를 막는 처방이 될 수 없다.

“가톨릭교회가, 피임이 도덕적으로 불법이라고 고지식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피임 사고방식’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가치들은, 바라지 않은 생명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는 [낙태의] 그 유혹을 강화시키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피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곳에서 낙태 조장 문화가 특히 위세를 떨칩니다.” <생명의 복음 13항>

많은 이들이 미혼 임신과 낙태를 막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피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임은 생명의 전달이라는 성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며, 피임의 실패로 인한 임신은 보통 낙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는 피임법이 아니라 성의 인격적 의미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결과 혼인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결실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과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부부 관계의 충만함이 보존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래전 본당에서 1년 동안의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세례성사를 위해 마지막 면담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형제 한 분과 나눈 대화가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시장에서 작은 신발 가게를 합니다. 사실 제가 성당에 온 이유가 신발을 많이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옆 가게를 보니 주인이 천주교 신자라 성당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교리를 배우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결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 죄스럽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형제님! 하느님은 형제님을 바로 그런 방법으로 부르셨나 봅니다. 이미 하느님이 다 아시고 용서해주셨을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아주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멀리 가파르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어리석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고 하십니다. 헛된 것에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빵의 기적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심을 한껏 채워줄 분으로 기대했고, 충분히 자신들의 왕이 되고도 남을 위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럼,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다그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을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왜곡되어 버립니다. 마치 부모님께 효도를 드리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바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그 옛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군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자신의 욕심가운데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복음말씀을 기억한다면 순수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이호미 엘리사벳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금자 테레사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1/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레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박진수 스테파노	김금자 테레사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8월

- ◆ 병자 영성체 : 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 시간 : 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동구역
모 승천 대축일 미사 : 15일(토) 오전 8시30분

- ◆ **김수환 추기경 추모영상 DVD 오늘 주일(2일)로 신청 마감**
- 내용 : 추기경님의 유언말씀, 장례 예절 등 차례로 수록.
60분 DVD, 보급가 : \$15 * 신청 : 본당 사무실
- ◆ **외박교우를 위한 특별 예비자 교리반 개설 첫 준비모임**
- 일시 : 8월5일(수)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외박교우'란 부부 중 한사람이 비신자인 가정을 말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골프회 8월 정기토너먼트**
- 일시 : 8월8일(토) 티오프 : 낮 12시
 - 장소 : 엘도라도팍 골프코스
 - 문의 : 신임회장 정충로 안토니오 ☎(310)991-6966
부회장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 ◆ **연도 연습**
- 일시 : 8월9일(주일) 낮미사 후
 - 내용 : 상장애식에 수정된 부분이 있어 연습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안나회 점심 피크닉**

❀ 감사합니다. ❀

故 김종환 야고보의 장례와 저희 가족을 위해 사랑의 기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우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
니다. 김옥찬 수산나 올림.

- 일시 : 8월9일(주일) 낮미사 후
● 장소 : 델손 팍(Madrona + Spencer 코너, 토런스)
● 문의 : 김금자 테라사 안나회 총무 ☎(310)539-9526
-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특강**
● 일시 : 8월12일(수)/13일(목) 오후 7시30분 미사 후
● 강사 : 이연학 요나 신부(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 ◆ **남가주 여성 제30차 꾸르실료에 본당에서 4명 참가**
● 일시 : 8월27일(목)~30일(주일)
● 참가자 : 고규재 체칠리아, 엄혜은 도로테아,
채승희 에스터, 최경애 프란치스카
● 참가자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첫영성체 사진 찾아가세요**
● 지난 6월5일 예수님의 성체를 처음으로 모신 첫영성체자들은 단체 기념사진과 개인 스냅사진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 ◆ **안녕히 가십시오.(전출하는 가족)**
수요 평일미사와 주일 학생미사에서 지난 4년간 복사로 봉사해온 주일학교 박지수 비비안나(8학년)의 가족이 8월4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대한제당 LA지사에 파견나왔다 본사로 들어가는 아버지 박재철 사도요한(어머니 안홍순 로사, 동생 박현 다미아노, 토런스 서2반) 형제를 따라 귀국하는 비비안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출 본당은 수월교구 광주시 오포성당입니다.
- ◆ **대학부 파첸(PACEM) 공부방 개설**
본당 대학생 신자들로 구성된 PACEM이 '공부방'을 개설합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신청해주십시오.
문의 : 회장 황선흥 그레고리오 ☎(424)903-663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2일(주일) : 한 신자 가정이 전신자분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 8월9일(주일) : 토런스 북1/2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광자	김성현
	김영미	김용	김우용	김재영	김주량	김준호
	김찬구	김태호	문춘화	박동수	박영룡	박음전
	박인식	박종열	박진수	박진심	양영관	오세원
	우영희	윤화경	이병우	이석진	이석호	이현주
	정규숙	조소영	최길주	최미열	최수복	최이원
합계 : \$2,990						
미사현금 : \$2,670			임명장 도네이션 : 문두현			

성전헌금	강순복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광자	김성현
	김용수	김우용	김주량	김준호	김찬구	문춘화
	박동수	박영룡	박인식	박종열	오세원	윤화정
	이병우	이석호	이현주	정규숙	최길주	최미열
	최수복	최이원				
합계 : \$3,060						
감사헌금 : 한알렉스, 故이병호 토마스 자녀들						

주일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기간 : 오늘 주일(2일)~9월27일(주일)
 - 등록비: \$100 (9월14일 이후 \$11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40 (가정당)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속히 마쳐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고등부(9~12학년) 바ível 스타디**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층 룸 7
 - 문의 : 한기찬 알렉스 ☎(310)625-6492
- ◆ **여름방학 중에도 학생미사가 오전 9시30분에 있습니다.**

남가주 소식

- ◆ **성 골롬반 청소년 2009 선교회원 모집**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재)에서는 가톨릭 신자로서 선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새 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 고등학생 9~12학년
 - 신청기간 : 8월3일(월)~31일(월) 한달간
 - 신청 및 문의 : ☎(213)389-9827
- ◆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의한 8박9일 침묵 피정**
- 일시 : 8월12일(수)~8월20일(목)
 - 장소 : 예수고난회 피정집
 - 주제 : 예수님과 함께 갈망하는 삶을 향해
 - 지도 : 윤성희 이나시오 신부(예수회)
 - 주관 : 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신청 : 정도로테아 ☎(818)321-9505
- ◆ **2009년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일정 : 8월22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8월23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16007 Crenshaw Bl. Torrance)
 - 강사 : 오스카 솔리스(LA대교구 보좌주교),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작은형제회 한국관구장), 현요안 요한 신부(세계성령대회 준비위원), 전홍식 요아킴 신부(베이커스필드 성당 주임), 반영역 라과엘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 참가비 : \$25(예약시 \$20)
 - 연락처 : 각본당 성령기도회 및 봉사회 ☎(213)435-7570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2시30분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유현자 안나 320-3697 8/14(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유선식 필립보 326-2184 8/22(토) 오후 7시
	3	신덕례 데레사 634-6169	신덕례 데레사 634-6169 8//20(목) 오후 8시2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엄혜은 도로테오 200-0512 8/11(화)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8/21(금)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8/8(토) 오전 10시 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최옥희 데레사 378-4183 8/14(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8/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8/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오세원 아타나시오 895-8624 8/7(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8/28(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윤희동 안토니오 365-9750 8/23(일) 오후 2시, 성당 천교장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사람이 준비한 그릇에 비례하는 하느님의 은혜

마태오 복음 13,53-58은 예수님의 고향방문기를 들려준다. 마태오는 마르코의 원전(마르 6,1-6)을 옮겨 쓰면서 약간 고쳤다.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장황한 비유설교(마태 13장)를 마친 예수께서는 호수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고향을 떠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 갈릴래아 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진 방문이다. 물론 나자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향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래서 예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서기도 했다.(마르 3,21) 한번은 예수께서 한참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 예수를 불러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마태 12,46-50; 마르 3,31-35)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씩씩한 마음을 달래며 물러가야 했었다.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께 나자렛 사람들이 준비한 것은 축하의 꽃다발이 아니라 푸대접과 불신이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움을 표하지만 그 놀라움은 이내 불신과 거부로 변한다. 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문 의문을 제기한다. 사람들은 예수가 가진 지혜의 정체에 대하여, 그 지혜의 출처에 대하여 묻고,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직업, 부모, 친척, 인척들에 대하여 논하면서 포괄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57절)라는 속담으로 대응하셨다. 예수의 고향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태도는 그들이 예수라는 인물과 그분의 인격을 서로 떼어 놓고 보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과거 속에서 현실을 보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예수께서 지니신 지혜와 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것을 예수라는 인물과 결부시킬 수는 없다는 그들의 고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범인(凡人)의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예수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근본이 목수의 아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사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곧잘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껍데기에 불과한 고향, 학연, 지식, 권력, 재물 등 그 사람이 관련되거나 소유한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내적인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그 자체로도 불행한 것이지만 실제로 사회 전체의 불행을 초래한다. 물론 좋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객관적으로도 존재한다. 오늘날 첨단 과학이 가져다 준 컴퓨터의 기술이 바로 그렇다. 사람들은 컴퓨터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원초적으로는 사람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의 주관적인 인격이 일구어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물을 배제한 그분의 객관적인 가르침과 업적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물과 인격, 예수님 전체를 믿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분의 가르침을 설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말한다. 삶이 곧 무언의 설교인 셈이다.

고향사람들의 불신적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단호하다. 마르코복음은 이와 같은 대목에서 ‘예수께서는 단지 몇 명의 병자들만 고쳐주시고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마르 6,5)고 말한다. 마태오는 자칫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오해를 없애고자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58절)고 수정했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기적도 없다는 것이다. 구원도 기적도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접수하는 인간 측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복음서의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치유와 기적이 있고 용서와 구원이 배풀어진다. 이는 곧 사랑이신 하느님의 인간 믿음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들 인간이 준비한 그릇에 늘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주임신부